

##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

대지의 예술제 ‘에치고쓰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도카마치와 쓰난마치를 포함한 760km<sup>2</sup>의 광활한 지역을 무대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야외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래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아트 페스티벌로 자리 잡으며, 눈의 고장 니가타를 역동적인 현대예술의 중심지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원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전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카마치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트리엔날레는 예술, 생태 그리고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예술을 미술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야외공간으로 나오게 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적인 산간마을의 생활에 대한 매력과 품격을 주민과 관광객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주제로 한 장소 특화형 아트 설치물은 풍경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밭이나 골목길, 민가와 빈 집의 외관, 공원과 정원 안의 굽잇길 등에 설치되어 지역 풍경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설치물 중에는 벤치나 놀이터, 창고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자연이나 농업,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현대예술과 전통적인 마을의 생활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둘의 근저에는 조화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는 페스티벌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러시아 출신 예술가 일리야 카바코프와 에밀리아 카바코프가 만든 ‘논’이라는 작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전통적인 기리에(종이를 오려 내어 사물의 형태로 만든 것) 같은 형상을 한 마른 인물이 계단식 논에 서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풀을 베고, 벼를 수확하는 벼농사의 고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령의 논 소유자는 오랜 세월 힘겹게 가꿔온 논을 조상들의 인내의 상징으로 여기며, 이 프로젝트에 논을 빌려주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논을 계속 경작하는 것이 이 작품의 콘셉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술작품의 일부로서 이 땅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페스티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계속 경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치물은 눈의 고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노동을 분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차와 주먹밥을 대접하며, 소통과 상호이해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트리엔날레가 시작된 이래로 크리스티앙 불탕스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차이

구어 치앙, 제임스 터렐 등 세계 각지에서 약 1,000명 이상의 저명한 예술가와 건축가가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200개가 넘는 상설 설치물이 농촌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년 내내 방문객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임시 설치 작품이 더해지는데, 이를 보기 위해 50만 명의 관람객이 니가타의 산간지역을 찾습니다.